東大時報

發行兼編輯印刷人 白性郁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1687·6901
(週刊)
月定購讀料 貳百圜
一部定價 五拾圜

今週一言

現代悲劇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부터 始作한다
—버트란드·럿셀—

第一回全國中高生珠算大會

—實力은 地方學生이 優秀—

團体賞優勝校에 群山南中 大田商高

個人賞一位엔 金·姜兩君

商學系의 全國男女中高等學校 學生들로 하여금 珠算技術의 熟達을 圖謀하고 이에 對한 創意性과 그 判斷力을 앙양시키기위하여 本校 法政大學 經濟學會、商學會、經營學會가 共同主催한 第一回 全國男女中高等學校 對抗珠算競技大會가 商業銀行後援으로 지난八日 禪武部修鍊舘에서 開催되었다

이날 同競技大會는 上午十時 本校 白總長을 위시해서 李必奭 商業銀行總裁와 全國各地 五十餘個中高校에서 모여든 三百餘名의 珠算王들이 參席한가운데 大會長 金炯成(經濟學會長)君의 司會로 始作되어 午前엔 中等部 午後엔 高等部의 順으로 各種目別競技가 行해졌는데 競技進行은 商業銀行측(黃仁圭代理、崔恭植氏外十五名)이 全擔하였다

그리고 施賞式은 이날 下午六時頃에 同場所에서 擧行되었는데 個人賞에는 김길남(群山南中)、강경조(大田商高) 兩君이 一位의 榮光을 獲得했으며 團體賞에는 群山南中이 大田商高와 各各一位를 차지하여 地方學生들의 珠算실력에 있어 絕對的인 優勢를 보여주었다 한편 同競技大會의 技術種目과 入賞者들은 다음과 같다

中等部

▲團體賞
一等 群山南中學校
二等 文英女子中學校
三等 筏橋中學校

▲學校對抗리레
一等 裡里中學校
二等 文英女子中學校
三等 大東中學校

▲個人賞
一等 김길남(群山南中)
二等 박만석(筏橋中)
三等 정인숙(文英女中)

▲種目別 個人賞
獨算加算
一等 박만석(筏橋中)
二等 변봉팔(大田신흥)
三等 홍순옥(文英中)

獨算加減算
一等 변봉팔(大田신흥中)
二等 유제구(裡里中)
三等 김길남(群山南中)

獨算乘算
一等 박만석(筏橋中)
二等 홍순옥(文英女中)
三等 정인숙(文英女中)

獨算除算
一等 박만석(벌橋中)
二等 김후수(군산南中)
三等 김길남(群山南中)

아라비아字傳票算
一等 이승운(군산南中)
二等 한부자(文英女中)
三等 이은평(大田신흥中)

呼算加算
一等 이완규(군산南中)
二等 한부자(文英女中)
三等 김후수(군산南中)

呼算減算
一等 이완규(군산南中)
二等 정인숙(文英女中)
三等 김길남(군산女中)

呼算暗算
一等 박만석(벌橋中)
二等 조규정(群山南中)
三等 정인숙(文英女中)

揭지暗算
一等 조승희(광신中)
二等 김날남(群山南中)
三等 전수정(群山南中)

綜合算
一等 신부남(全州中央女中)
二等 김날남(群山南中)
三等 유제한(裡里中)

高等部

▲團體賞
一等 大田商高
二等 벌橋商高
三等 群山商高

▲團體對抗리레
一等 釜山商高

▲個人賞
一等 강경조(大田商高)
二等 박서원(벌橋商高)
三等 이헌영(群山商高)

▲種目別個人賞
獨算加算
一等 이가익(裡里商高)
二等 조휘정(德壽商高)
三等 노명수(釜山商高)

獨算減算
一等 박서원(벌교商高)
二等 김승이(慶南商高)

獨算乘算
一等 박서원(벌교商高)
二等 장방홍(벌교商高)
三等 이정옥(釜山商高)

獨算除算
一等 김귀중(釜山商高)
二等 장방홍(벌교商高)
三等 김대규(大田商高)

아라비아傳票算
一等 강경조(大田商高)
二等 이헌영(群山商高)
三等 이경우(서울商高)

漢字傳票算
一等 임영소(大田商高)
二等 강경조(右同)
三等 윤만영(선린商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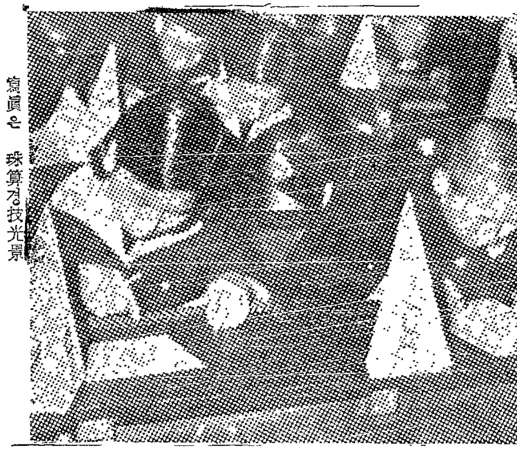
呼算加算
一等 김대규(大田商高)
二等 장방홍(벌橋商高)
三等 박서원(右同)

呼算加減算
一等 김대규(大田商高)
二等 박서원(벌교商高)
三等 이용구(大田商高)

呼算暗算
一等 임영소(大田商高)
二等 강경조(右同)
三等 박서원(벌교商高)

揭지暗算
一等 남궁홍순(群山商高)
二等 신광인(大田商高)
三等 정봉수(群山商高)

綜合算
一等 이헌영(群山商高)
二等 강경조(大田商高)
三等 이광홍(경남商高)


寫眞은 珠算경技光景

名作名譯의 陽文文庫

菩提樹

三界

迷한 衆生의 生死輪廻하는 境界를 欲界、色界、無色界의 세種類로 區分해서 三界라고 한다。또는 三有라고도 하는바 有는 迷의 因果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뜻이다。또는 이것을 二十五有 六道 五趣 九地等으로 나눈다。欲界라고 하는 것은、食欲、淫欲 睡眠欲이 있는곳을 말하는것으로、地獄、餓鬼、畜生、修羅、人間및 六欲天이 이것이다。色界라고함은 淨妙한 色法이 있는곳을 말한다。四禪天이 이것이다。無色界라고 함은 色法이 있지않은 곳을 말한다。四無色天이 이것이다。或는 微세한 色法은 있으나 麤顯한것은 없다고한다。順正理論卷二十一에 三界의 區別에 대해서 「만약 界에 色이있어 定이없는것、이것을 欲界라고 이름하고、만약 界에 色이있고 또한 定이 있는 것、이것을 色界라고 이름하고 만약 界에 色이 없고 定이 있는 것、이것을 無色界라고 한다。或은 界에 色이 있고 欲境이 있으면 이것을 欲界라고 이름한다。만약 界에 色이 있고 欲境이 없으면 이것을 色界라고 이름한다。만약 界에 갖추없음은 이것이 無色界다」라고 있다。俱舍論卷八의 뜻에 의하면 三界의 界는 任持의 뜻이고 함은、種族의 뜻이 있다。任持란 自相을 가지는 뜻으로 欲의 界이기 때문에 欲의 自相、色界이기 때문에 色의 自相、無色界이기 때문에 無色의 自相을 가짐을 말한다。種族이란 生本即因의 뜻을 가지고 各種의 自相을 相續하는 因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또種族은 種의 族類로서、各各自性이 다름을 말한다。即 三界가 各別해서 自類相續하는 故로 말한다。그리하여 欲界란 欲所屬의 界의 뜻으로 界는 總通의 이름、그中에 欲所屬의 界 即 欲인 界를 欲界라고 한다。색계 무색계도 또한 같다 이것은 界를 種族의 뜻을 任持하는 것을 欲界라고 한다、이것은 任持의 뜻이로서 界를 解하는 경우이다。이 三界는 果報에 優劣이 있다。苦와 樂이 差別이 있다고 하나 다 같이 迷界로서 聖者의 厭棄하는 바임으로 혹은 火室과 같다고 하고、혹은 노獄과 같다고 比喩한다。法華經에서 「三界無안 猶如火宅」이라고도 하고 또는 「能於三界獄勉出諸衆生」이라고 한것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要컨대 三界라고 함은 生死流轉해 마지않는 이 迷界를 分類해서 欲界 色界 無色界라고 한것으로 欲界는 即食欲이요、그中에서도 特히 食慾과 婬欲과 睡眠欲의 三欲의 强盛한 世界를 말하고、色界란 欲界와 같은 慾은 없으나 微妙한 形體를 가지는 世界요、無色界라고 함은 純精神的存在의 世界를 말한다。

四·一九모습海外紹介

大學生使節團月內出發

四·一九革命의 참다운 모습을 海外各國에 소개하고저 지난 六月에 結成된바 있는 「韓國大學親善使節團 海外派遣準備委員會」에서는 그동안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의 協助를 얻어 여러 海外우방各國과 協議中에 있었는데 이번 그 目的이 達成되어 오는 二十五日頃에는 「韓國大學生親善使節團」이 出發하게 되었다 한다

이번에 派遣되는 同大學親善使節團은 十二個國으로부터 招請을 받았으나 經費때문에 「泰國」「日本」「越南」「比律빈」等 四個國을 約一個月間에 걸쳐 尋訪하리라 하는데 構成멤버는 本校 政治科三年 李淳權君等 各大學校代表一名씩이라고 한다

學術講演會

十七日갈발회에서

本校 文理大 國文學科生 多數로 組織된 갈발회(會長 李相龍)에서는 오는十七日(木) 下午二時半 第三十四강의실에서 趙潤濟博士를 招聘코 學術講演會를 가지리라고 하는데 연제는 「國文學硏究의 새로운 課題」라고 하며 또한 本校 李丙疇敎授의 「處應당 文學」이란 講演도 있으리라고 한다

政治科卒業班 板門店을 訪問

法政大學 政治學會에서는 十一月 十五、六、七日 三日間에 三次에 걸쳐 政治科卒業生 九十名에게 板門店을 見學케하였다 한다

이번 見學에서 第八軍의 後援을 얻어 申基珍 政治科主任敎授를 모시고 金元植 政治學會長의 인솔하에 三十名씩 三次에 걸쳐 九十名의 學生이 板門店및 八軍團 自由마을등을 訪問할것이라 한다。

東國의 表情

全奎弘副總長

西獨大使로 赴任

—謹嚴에 慈愛가 넘치는 微笑—

學生의 政治關與는 不當

▼…第二共和國의 脚光을 받으며 政界에 다시 발을 딛게된다는 풍문이 떠돌고있는 本校副總長 全奎弘博士님을 副總長室로 찾았다。

副總長님은 巷間의 西獨大使說과는 無關의 한듯 조용히 冊을보시다말고 學者다운 淡淡한 表情으로 記者를 맞아주신다。

언제쯤 西獨大使로 赴任하시게 됩니까? 單刀直入的인 記者의 質問에 副總長님은 고개를 左右로 흔드시면서 노·코멘트하고 손으로 몇있는 제스츄어를 해보이시곤 話題를 바꾸시었다。

▼…初代駐佛公使를 歷任하며 다國際舞台에서 多年間 活躍한바있는 博士님의 風貌에는 老練한 外交官다운 面이 엿보였다。全博士님의 그 肉重한 體軀에 〈보·타이〉는 상상불이었으며 얼굴은 謹嚴한 印象을 주면서도 滿面에는 언제나 慈愛가 넘치는 미소가 흐르고 [illegible] 副總長님을 對하며는 절로 근심걱정이 가라질것만 같은 爽快感을 먼저 주었다。博士님이 남달리 歐美人들의 많은 벗을 가지고 있는 것도 博士님의 그 豊富한 人間愛가 國境을 超越하게 됐으리라 생각되었다。

▼…學生들의 南北統一聯盟結成에 質問이 미치자 博士님은 갑자기 緊張한 表情으로 [illegible] 一部學生들이 現實的인 政治問題에 直接干與하려 드는 것은 學生의 本分을 離脫한 脫線的 行動으로 본다고 크게 警告하셨다。偉大한 四月革命精神을 스스로 辱되게 하지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조심성있게 말씀하시는 全博士님은 政治는 現實이니 만큼 學生은 어디까지나 理念에 살아야 하며 將來의 民主社會建設을 위한 學問的、硏究的인 活動에만 局限하고 政治運動은 삼가해야 할것이라고 學生들의 自重을 再三要望하셨다。

▼…博士님은 까마득했던 東京留學時節로부터 美國留學時節을 回想하는듯、한동안 무거운 想念에 잠기시었다。『아무튼지 요즘學生들은 참으로 幸福스러워 보여요。우리가 學校다닐때는 나라없는 백성의 悲哀란 기막힌것이었읍니다。어데가나 그 슬픔은 따라다녔으니까요 唯獨 國際學生舞台같은 데서 만는 弱少民族의 悲哀란 뼈저린 것이었읍니다』하고 말씀하시는 博士님의 表情은 어두어 보였다。世界 어데가서나 지금 學生들은 當當히 獨立國民의 한사람으로 떳떳이 行動할수 있다는 것을 感謝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國際學生舞台에서 우리 東國大學生들이 많이 活躍해주기를 바란다고 後進들을 激勵하셨다。

尹大統領·張總理等禮訪

大學農村硏究聯合會代表들

지난 五日부터 七日까지 三日間 第三回定期總會를 가진바있는 全國各大學 農村硏究聯合會代表一同은 지난七日下午 二時에 農林·文敎·復興部長官을、五日에는 張國務總理를 各各禮訪、八日에는 景武台로 尹大統領을 禮訪하고 農村硏究에 關한 對政부建議書를 本校農科四年 이우순君이 代表하여 各各傳達하였다

龍雲文學會서

龍雲詩集發刊

詩文學의 眞摯한 活動을 目標로 國文科一學年生中心으로 지난六月十八日 發足한바 있는 龍雲文學會는 그간 文學會長 鄭恩培君의 指導로 끊임없는 써클活動을 계속하여오던중 이번 龍雲詩集第二輯을 發行하여 東國文壇에 크게 寄與케되었다 한다

大學入試전형方法協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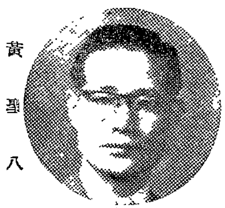
全國大學敎務處長高校長等參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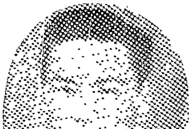
大學入試銓衡方法協議會가 十一日上午九時 市內日新國民學校講당에서 開催되었다。同協議會는 現行大學入試銓衡方法을 再檢討함으로써 高等學校敎育의 正常化를 期하고 보다 公正하고 合理的인 銓衡方法을 採擇하여 이를 勸奬하는데에 그 目的을 둔것인데 이날會議에는 全國高等學校長과 各大學敎務課長및 敎務處長等 一百餘名이 參席하였으며 本校에서도 趙明基敎務處長과 金宗植敎務主任이 參席하였다 한다

이날會議에서 서울師大 鄭範謨敎授의 「大學入試制度改善을 爲한 提案」이 있었고 文敎部秘書官 鄭元植氏의 「大學入試問題의 分析的 硏究報告」가 있었다 한다

黃·韓兩君入選

大學院生經濟學發表會서


黃聖八


韓昌愚

지난 九、十兩日間 國際聯合社에서 開催된 第四回 全國大學院學生 經濟學硏究發表大會에 本校 大學院에서 黃聖八 韓昌愚 朴忠煥君이 參加하였는데 黃君은 「對日通商의 展望」이라는 題目으로 硏究發表를 하여 韓國生産性本部 理事長賞을 탔으며 韓君은 經濟民主化및 기業民主化에 대한 質疑戰에 參加하여 中央放送局長賞을 獲得하였다

그런데 黃君의 對日論旨는 交通商에 對한 政治的으로 혹은 經濟的要易이 되도록 立脚하여 双方의 友好的 利益이 去來를 할수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韓君의 質疑는 政府가 公共業體에 民間投資를 活潑케 하여 經濟民主化를 도모하는 方案에 대해서였다고 한다。

大學·高校 經濟세미나

全國自立經濟推進委主催

全國自立經濟推進委員會에서는、지난十二日 本校構內食당에서 市內男女高等學校代表 五十名과 各大學別로 構成된 自立經濟中央常任委員 二十名이 參席하여 討론會를 開催하였다。

本토론大會에서는 自立經濟 運영方案에 對하여 眞摯한 論議가 있었고 大學生과 高等學生들 相互間의 意見을 交換하였다 그런데 本校生으로선 金炯成 白鍾萬 金在鎭君이 參席하였다。

西洋史學會硏究發表會

十二日本校에서

韓國西양사학회 秋季硏究發表會가 十二日本校 第二十三강의실에서 百餘名의 學生들이 모인가운데 열렸다 硏究發表會의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一、서양美術史管見…姜泰旭
一、英國에있어서의엔크로저 運動에 對하여…羅鍾一
一、유더時代의 勞動…

第五回「文學의밤」

26日、國文學會主催로

國語國文學會主催 第五回「文學의밤」이 오는二十六日午後六時부터 本校中講당에서 열린다 東國文學의전統을 계승해 나아가 後輩를 養成하고 本校文學徒들에게 作品發表의 機會를 마련해주기위해 本校國文學會가 主催하는 同「文學의밤」에는 本校出身文人들의 詩、隨筆、콩트、評論等의 文學作品朗讀이 있을것이라고 한다

政策……崔文衡
一第十一回歷史學大會參加報告…趙義설

金·姜君에總長賞

政治懸賞論文募集서

政治學會主催로 十月一日부터 同二十五日까지 募集된 第二回秋季懸賞論文募集入賞者들에 對한 施賞式이 지난十日 本校總長室에서 擧行되었는데 特賞(總長賞)에는 金文煥(政四)、姜英石(政四)兩君인바 受賞者및 論題는 다음과같다

▲特賞(總長賞) 金文煥(政四) 民主政治의後進性을克服하는길 姜英石(政四) 辯證法의歷史性과 그批判

▲우수賞 沈敎秀(政四) 盧成烈(政四) 趙國衡(政三) 李鳳相(政三)

英文學會主催로 英詩暗誦大會

本校 英語英文學主催 第十七回 英詩暗誦大會가 지난四日 第十七講義室에서 英文學會幹部全員과 七名의 參加學生 그리고 多數의 學生들이 參集한가운데 열린 同大會에서 崔仁和英文學會長의 同「大會가 盛況을 이루지못했고 準備가不充分한점을 깊이 사과하고 學生들의 協助가全無하였음은 遺憾된일이라」는 人事에이어 本大會에들어가 約三十分間에 걸친 英詩暗誦이 있었는데 皮千得·李昌培敎授가 심사한結果 入選者는 全無하였다 따라서 同大會는 學生들에게 英詩朗讀術의 認識을새로히해주었고、어떤行事가 學生들의 協助없이 盛況을 이룰수 있는가하는 疑問을남긴채 閉幕하였다。

全國大學記者協會

結成準委構成

全國大學 記者協會結成 準備委員會가 十二日 構成되었다 同準備委員會에서는 會則및 其他事項의 制定을 起草委員에게 일단 일임하기로 合意를 보아 起草委員을 選定한後 起草委員의 再會合후에 結成日字를 定하기로 하고 散會했는데 起草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朴贊世(高大) 朴喜虔(延大) 任定彬(中大) 李鍾文(建大) 白相基(慶大) 尹靑光(東大) 崔時浩(成大) 金潤姬(淑大) 李鍾善(梨大) 裵鍾淳(漢大)

黑白地帶

▲하로르드·J·라스키는 自由와 民主主義를 寬容의 辯護라고 말했다 寬容이 없는곳에 民主主義와 自由는 있을수 없다는 말이겠다。▲寬容은 남의 잘못을 諒解하고 容恕하는 것도 重要하지만、自己主張이나 利益에 陶醉하거나 固執하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重要하다。▲寬容은 먼저 남의 意見을 尊重하여 妥協과 討論을 通하여 最善을 採擇할줄 알아야 한다。그리고 我執을 버리는 것이 또한 佛敎의 眞諦다。

社告

本校의 同窓 其他 學校外部에 發送하는 東大時報는 全部 無料로 進呈하고 있아오나 間或 本報記者를 詐稱하고 代金을 請求하는 事例가 있다고 傳聞되오니 諸賢께서는 一切 이에 應하지 말아주시기 仰望하나이다。

東大時報社 白

戰後世界文學全集 第七卷 (第二回配本)
日本戰後問題作品集
日本戰後文學 15年의 눈부신 展示場! (單行本 3,4卷의 作品量을 한책에 收錄한 廉價·普及版!)
定價 1,600환
豫約價 1,400환
第一部 問題作
白色人 遠藤周作·鄭漢淑 譯 〈芥川賞作品〉테제와 앤티·테제가 錯綜한 現實의 矛盾과 精神의 鬪爭을 描破한 問題文學。日本의 모리아끄라고 불리우는 遠藤의 處女作
太陽의 季節 石原愼太郞·辛東門 譯 〈芥川賞作品〉太陽族붐의 主人公 石原이 水爆的인 人氣로서 全日本을 席捲하게 된 處女作。傍若無人하고 솔직하게 靑春을 謳歌하는 戰後의 生理를 描破한 日本의 비트 文學
벌거숭이 임금 開高健·金東立 譯 〈芥川賞作品〉社會의 矛盾과 商業主義의 反人間性을 解剖한 날카롭고 유모러스한 名篇 主知的인 開高의 文學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
飼育 大江健三郞·吳尙源 譯 〈芥川賞作品〉東京大學在學中의 神童 大江가 獨特한 日本散文으로 描寫한 墮落 黑人操縱士를 우리 속에서 기르는 奇異한 스토리。芥川賞 作品中의 白眉!
楢山節考 深澤七郞·桂鎔默 譯 〈中央公論賞作品〉日本文學 有史以來의 名作品이며 日本人에게 노벨賞이 주어진다면 마땅히 이 作品에게라고 評價되는 日本語藝術의 精粹!
俘虜記 大岡昇平·安壽吉 譯 〈橫光賞作品〉「타임誌」에서도 격찬을 받은바 있는 大岡文學의 出世作。二次大戰의 생생한 體驗을 素材로 한 人間의 條件과 運命과 狀況으로부터 脫出口를 暗索하는 피눈물나는 戰爭文學의 珠玉篇
新聞紙 三島由紀夫·崔貞熙 譯 美國에서도 映畫化된 일이 있는 世界的인 作家 三島의 代表的인 掌篇。平凡하고 倦怠로운 유한 매담의 內面世界는?
斜陽 太宰治·辛東門 譯 戰後의 流行語「斜陽族」을 낳게 한 長篇問題作。現代社會의 메카니즘에서 人間의 敗北와 新禱와 슬픈 反抗을 한 女主人公의 抒情으로서 呼訴하고 自殺한 鬼才 太宰文學의 結晶
永遠한 序章 椎名麟三·鮮于煇 譯 戰後日本實存文學의 第一人者이며 日本의 도스트에프스키라고 呼價받는 椎名의 力作巨篇。一週餘日로 肉迫한 죽음을 앞두고서 비로소 生의 喜悅을 맛보는 人間의 證言은?
第二部 問題作의 周邊
戰後十五年의 日本小說 韓日戰後小說의 比較……村松定孝外 問題性을 찾아서……譯者 白鐵
作家는 말한다 드라마와 詩……遠藤周作 끝없는 登攀……石原愼太郞 트레이닝時代……開高健 連帶의 感情……大江健三郞 外道처럼……深澤七郞 옥쟁이에 대하여……大岡昇平 日記……三島由紀夫 「가을」……太宰治 衣·食·住……椎名麟三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나라에 文學이 流布되지 않는가 …中略… 貴社의 提案은 日本이 잊혀지고 韓國의 文學이 日本에 紹介되어 반가운 뉴-스입니다 …中略… 그리고 著作權의 問題에 關해서는 貴社에 一任합니다。 原作者代表 椎名麟三
그전에는 하루에 두번씩 내왕하던 日本이 解放後 十五年 동안 洞穴처럼 되었었다。이제 神秘의 帳幕은 찢어지고 東洋文學의 一環으로서의 戰後日本文學을 接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特히 十五年間의 우리文學과 對決시켜 보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은 더욱 愉快한 일이다。 서울大學校敎授 國文學者 鄭炳昱
새로운 思潮와 새로운 文學은 새로운 哲學을 斷片的으로 輸入함으로서 可能한 것은 決코 아니다。우선 現實을 보는 눈이 全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戰後世界文學全集 全七卷은 우리 文學人에게 이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며、日本文學이 其中 한卷을 차지하고 있음은 歐美文學의 全體的 比重으로 보나 紹介的인 意義로 보나 企劃者의 正確한 良識의 判斷에 全的으로 同意하는 바이다。 서울大學校敎授 佛文學者 金鵬九
第一卷 (第一回配本) 第一共和國 15年 文學의 總決算! 韓國戰後問題作品集 〈編輯委員〉白鐵·崔貞熙·安壽吉·李御寧
第一部 問題作品 요한詩集……張龍鶴 (外 二十篇)
第二部 問題作의 周邊 戰後15年의 韓國小說……白鐵 問題性을 찾아서……李御寧 作家노-트 앞에……安壽吉 作家는 말한다 實存과 요한詩集……張龍鶴 (外 二十名)
값 1,600환 豫約價 1,400환
次回配本 英國戰後問題作品集 獨逸戰後問題作品集 佛蘭西戰後問題作品集 美國戰後問題作品集 南·北歐戰後問題作品集
編輯委員 白鐵 安壽吉 崔貞熙
15年의 안개걷히다 당당 飜譯權을 획득! 斯界 權威者의 精選! 現役作家의 責任飜譯!
◀本書의 特色▶ ① 最近의 世界問題作을 斯界權威者가 뽑고 現役作家가 번역 ② 單行本三卷의 作品量을 단 한卷에 壓縮(原稿紙 三、五00枚收錄) ③ 問題作 解剖와 作者 自身의 解說을 첨가 ④ 戰後 各國 文學의 十五年史를 收錄 ⑤ 美麗한 體裁、厖大한 量、그러나 破格的인 廉價
新丘文化社 振替서울872
供給 韓國出版協同組合

「새삼스러이」의 論理

—哲學하는 方法으로서—

韓相璉

이 論文은 내가 四二八八年(一九五五年) 五月十一日부터 同十七日까지 五回에 걸쳐서 朝鮮日報<紙齡一萬號記念論文>에 發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學生들의 要請에 依하여 여기 그것을 다시 실리는 것이다. 나는 그後 더 硏究하여 다시 發表할 생각이었으나 그다지 硏究도 되지 않아 더 새로운것이 없이 거의 그때 그 思想을 그대로 發表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學生들에게 多少라도 參考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哲學을 찾아 보려고 하였다. 그리다가 偶然히 <새삼스러이>라는 말에서 그와같이 우리가 日常쓰는 말과 그 思考方式에서 哲學하는 方法과 또는 哲學하는 態度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곧 哲學이라는 것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四二七八年의 일이다.

一、『새삼스러이』란 무엇이냐

먼저 辭典에 依하여 그 뜻을 調査하였다. 李允宰著<표준한글사전>에 依하면 <새삼스럽다>는 (설씨)(一)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고 있다 (二)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 있다, 라고 쓰이어 있고, 文世榮著 修正增補國語大辭典에는 (一)(二)의 차례만 먼저것과 다르고 <표준한글사전>과 같다. 그런데 그後 다시 調査한것을 여기 말하면, <큰사전>에는, 지난 일을 한동안 잊었다가 새로 들추어내다 (생급스럽다③) <표준국어사전>(I)에는 (형)(여변) 한동안 있었던 것이 다시 생각나서 새롭다 (2) 지난일을 다시 들추어내다, 라고 쓰이어 있다.

그리고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는 <새삼스럽다>는 變格形、如新 생급스럽다.

라고 쓰이어 있어서 위에 調査한 辭典에 쓰이어 있는 뜻이 거의 같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첫째 <새삼스러이>와 <새삼스리>그리고 <새삼스럽다>라는 말이 서로같은 말이냐 하는 것, 둘째는 그 말들은 어느것이 形容詞이고 또 副詞며 名詞냐 하는 것, 셋째는, 사전에 쓰이어 있는 말의 뜻은 <새삼스럽다>라는 <새삼스럽다>의 意味를 또 說明하기에 表現하기에 充分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삼스럽다>는 形容詞로 되어있으나 <새삼스러이>나 <새삼스리>는 모두 副詞인것 같은 까닭이다. 例를 들면 <새삼스러이 말하다>라고 할境遇에 <새삼스러이>와 <말하다>와 <는 모두 動詞이고 動詞를 꾸며주는 말은 副詞라고 생각되는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새삼스러이의 論理>라고 할때 <새삼스러이>는 名詞化해서 쓰고 있다. 어떻던 文法學的인 것은 文法에서 論議될 問題이므로 나는 여기서 더길게 묻지 않겠다.

그리고 <새삼스러이>는 셋째 문제로 그러면 사전에 쓰여있는 <새삼스럽다>의 뜻은 그것이 <새삼스러이>의 意味를 充分히 說明 또는 表現된 것인가? 우리는 사전에 (一)(二)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이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고있다>와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있다>로 나눌수 있고、<다시 생각한다>는 생각(思考)의 뜻이고 <다시 하고있다>는 것은 하다(行爲)의 뜻으로 思考와 行動、理論과 實踐으로 나눌수 있다.

日常用語의 思考方式 속에 哲學하는 論理가 內在한다

사전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잊었다가 다시 생각하고있다>는 것은 어느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동안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또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있다>는 것은 亦是 하던 行動을 한동안 잊고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것은 생각이나 行動을 이제까지 하고 있다가 一時的中斷 即 잊었다가 或은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行動하는 것이다. 이것은 直線的으로 생각하고 直線的으로 行動하던것이 一時中斷되었다가 다시 直線的으로 생각하고 다시 直線的으로 行動이 繼續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전에 쓰여 있는 <새삼스럽다>의 말뜻인데 그것을 圖表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가、생각(思考)하다、잊었다가、다시 생각하고 있다.

(一)↓……↓

하다(行動)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 있다.

(二)↓……↓

(備考 ↓進行을 表示하고……는 中斷을 表示함.)

이와 같이 사전의 말을 해석하고 分析하여 보았으나 그것으로는 어딘지 <새삼스러이>의 語感이나 뜻이 뚜렷하지 않다.

萬一 내가 學生들에게 <새삼스러이>란 말은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고 있다가>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 있다>라는 뜻이다、하고 말한다면 그들은 <새삼스러이>의 참뜻을 實生活에 쓰이는 것을 잘 모를것이다. 따라서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고 있다> <한동안 아니하다가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새삼스러이>의 참뜻을 알기에 넉넉하지 않다.

二、「새삼스러이」의 槪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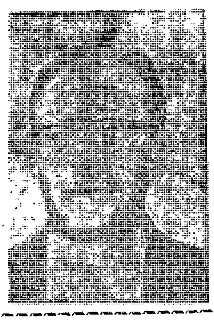
그러면 그 말이 實際 쓰이는 경우를 좀 조사하여 보자. 우리는 <새삼스러이>의 뜻을 <새것같이>(如新)의 뜻으로 흔히 쓰고 있지 않는가、여기서 <새것같이>라는 말은 헌것(古物)이 아니지만 새것같이 보인다 해서、참으로 새것이 아니지만 새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새것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새것과 꼭 같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例를 들면、<새삼스러이 고향이 그리워졌다>고 할경우에、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前에도 가져보았겠고 또 가져보지 않았더라도 그 감정을 알수 있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지만 이제 느껴보듯이 새것같이 느낀다는 데서 새것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새것이 아니지만 새것같이 해석할 수 있고 또 이제까지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갑자기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다면 그것은 새것과 꼭 같이 해석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경우 <새삼스러이>는 새것같이 또는 새것과 꼭 같이 라는 뜻으로 쓰여서 <새삼스럽다>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行動을 할 때의 그것이다. 實生活에서 우리가 쓰는 경우 뜻밖의 생각이나 갑자기 새것을 表現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 <새삼스러이>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 <새것같이>또는 <새삼스럽다>라는 뜻도 있고 <또다시> 찾을 수 있다는 뜻을 풀이하는 것이 있겠지만、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새것처럼 또 다시 풀이해 말할 것이 必要가 없다는 이와 같이 日常생활에서 쓰이는 例를 들어 分析하면 <새삼스러이>는 <새것>이지만 되풀이되는 <또다시>의 <생급스럽다>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或은 返復、再經驗等의 뜻을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새삼스러이>가 이것들을 理解할 수 있다고 充分하다고 할 것인가、그러면 나는 어떻게 實際로 생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그것들을 論理的으로 綜合하여 다시 概念으로 構成하여 一般化시켜 보겠다. <새삼스러이>란 우리가 이제 生活하는데 있어서 생각이나 行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中止하고 行動으로 바꾸어 다시 行하는 狀態를 瞬間、或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새삼스러이>또는 <새것같이>라는 말로는 나타내는 <새로운 것>이 생기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生活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든지 行動이 中斷되었던 것을 다시 生活하여 가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생각이 나고 그 行動이 中斷되었던 것이 다시 <새삼스러이>라는 契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瞬間이나 그 契機가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行動하는 것이 아닌가 (次號계속) (筆者·文理大敎授)

精神界의 偉大한 探險家

두美國科學者에 60年노벨物理化學賞

王立瑞典科學院은 三日 一九六〇年度「노벨」物理學賞을 美國「캐리포니아」大學의「도날드·그레이저」博士에게 그리고「노벨」化學賞을 同大學의「윌리아드·리비」敎授에게 各各授與하였다 當年三四歲의 젊은科學者「그레이저」博士는 原子의 寫眞撮影을 爲해서「泡말浴室」方法을 發見한 功勞가있으며「리비」敎授는「考古學과 地球物理學및 다른科學部門에 있어서의 年代判定을 爲한 炭소「四使用法」을 發見한 功이 있는것이다



化學賞受상者 리비氏

物理學賞受賞者 그레이저氏

그레이저(加州大敎授)博士決定

—노벨物理學賞受賞者도—

原子粒子撮영可能케 ="泡말浴室"考案에 成功=

「칼리포니아」大學校敎授로있는 美國의 靑年科學者「도날드·A·그레이저」는 三日 一九六〇年度「노벨」物理學賞을 獲得하였다 當年三十四歲의「그레이저」敎授는 原子粒子撮影을爲한「泡말浴室」을 考案하는데 成功함으로써 同物理學賞의 榮譽를 차지하게된것이다 「다이나마이트」發明者「알프레드·노벨」에 依하여 創立된 基金으로부터 同「그레이저」敎授에게 授與될 今年度賞金은 瑞典貨로 二二五、九八七「크라운」(美貨로 四三、六二七弗)이다

「그레이저」敎授에 對한 受賞決定은 瑞典王立科學翰林院에서 取해졌는데 同翰林院은 化學賞受賞者도 選出한다 今「노벨」受賞者들은 來十二月에 招賓되어「스톡호름」으로 전통적인 儀式下에 國王「구스타브」六世로부터 賞金「메달」및 學位等을 授與받는다 前記翰林院은「그레이저」敎授에게 보내는 表彰狀에서 基本的인 核粒子에 關한 知識은 大槪同粒子들이 物質을 通過할때「原子와 부딪침으로서 放出되는 少量의「에너기」를 남김으로써 나타나는 刺戟을 硏究함으로서 說明하여진다고 말하였다 一九五〇年度「노벨」物理學賞受賞者「C·파웰르」은 感度가 銳敏한 寫眞版의 乳劑속으로 高度의「에너지」를 지닌 粒子들을 通過시킴으로서 同粒子를 撮影하는 手法을 考案한바 있다. 또한 一九二七年度「노벨」物理學賞受賞者「C·T·R·윌슨」은「比較的 速度가 느린 粒子의 活動을 硏究하기 위하여「까스」가 充滿된 氣體室을 이미 發明하였었다 前記表彰狀은 이 氣體室과 乳劑間의 넓은「間隔」이「그레이저」敎授의 發明으로 메꾸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同表彰狀은「그레이저」敎授가 고안한「泡말浴室」에는 液體水素가 들어있는데 美國뿐아니라 歐洲의 巨大한 最新粒子加速機로서 極히 값있는 役割을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레이저 原子粒子撮影에 成功

炭素使用法案出 리비

리비 博士의 功績

「노벨」化學賞受賞者 年齡判定 위한 炭素 使用法案出

—考古物理學 등의 年齡判定—

一九六〇年度「노벨」化學賞은 三日 美國의「위르러드·F·리비」敎授에게 授與되었다 그는 이날「노벨」賞을 받은「캐리포니아」大學의 두번째 人物이다 앞서 同大學의「도날드·A·그레이저」博士는 物理學賞을 받았었다 이들 兩人에게 各各 四萬三千六百二十七弗의 賞金을 授與한 瑞典王立科學「아카데미」는 首都北端에 자리잡은「아카데미」建物에서 會同하였다 同「아카데미」는「리비」씨는「考古學·地球物理學및 그밖에 다른 科學部門에서의 年齡判定을 爲한 炭素使用法을 案出한 功勞에 對하여 受賞된 것이다 그는「地球自體의 原子時計」를 發明하였다고 한다 그가 發見한 放射能炭소의 年輪에 依한 方法은「宇宙의 放射能炭素의 年輪」을 探知하는 것이다

그는 一九五九年 原子力委員會의 委員職을 辭退하고「캐리포니아」大學으로 갔었다 當年五一歲의「리비」氏는「아이젠하워」大統領에게 보낸 書翰속에서 自己가 科學者의 位置에 지키려면 學究生活로 되돌아가야 할것이라고 말했었다「리비」氏는 本來「코로라도」州의「그렌드·배리」에서 出生하여 鑛山技術者가 될 意圖였으나「캐리포니아」大學에 入學한後 化學으로 轉換하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一九三三年 P·H·D 學位를 받았다 卒業後 그는 最初의 原子彈을 만들어냈던 秘密「맨하탄」計劃을 爲하여 일하기 시작한 一九四一年까지 母校의 敎授로 활약하였다 그는 同大學에서「우라늄 —二三五」의 分裂을「우라늄」이 「아이소토프」로부터 분리시키는 方法을 해왔다 一九四五年 그는「시카고」대학의 核硏究所로 轉勤하였다 처음으로 原子力委員會의 諮問委員會에서 일하게 되었던 一九五〇—一五四年間 그는 水소彈의 完成에 拍車를 加할것을 主張하던「에드워드·텔러」博士를 支持했었다 그가 發明한 放射能炭素에 依한 年輪探知法은 考古學者들과「質學者들에게 大端히 貴重한 것이다 이 方法에 依하여「뉴욕」州의 火四千年前에서 使用되었던 파[illegible] 및 頭髮의 年輪을 알게 되었다 [illegible] 이 方法은 어떤 機能을 發揮하여 宇宙放射능이 [illegible] 그렇다면 그 二萬乃至三萬年間 炭소量에 維持해왔는가? 이 二萬乃至三萬年間 世界의 炭소量에 變動이 없었다 또 期間中에 變動이 있었다고 假定할때 原子의 分解速度와 放射能의 同速化되고 있었다 即 炭소原子의 分解速度와 放射能의 新 炭소의 完全均衡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一例로서 그밖에 다른 有機物은 또는 생각해보건데 宇宙放射能과 分解速度間의 均衡狀態에서 維持하고 있는 그生命이 끝나는 瞬間 同化作用이 끝나고 分解作用만이 계속되는 것이다「리비」의 計算方法은 이 理論에 立脚하여 實驗해 낸 現象이 되는 物體의 年輪을 判出해내는 것이다(끝)

佛敎의 大衆化問題

(下)

朴春海

(承前) 하는 것은、마침내 佛敎를 破壞하는 것이라 非難도 하겠다。—아 같은 佛敎思想이 理있는 佛敎의 立脚地는 表面上은、消極的 否定的이어 豐富한 實地에도 이 要素에 뿐아니라、人間世上을 떠나 聖者不關焉함이、佛敎의 理想이여겨왔다。 그러나 聖行으로 出世間的인 佛敎의 消極的 否定的 見解로 버림은、그 最高의 所 같은 것이 世間을 消極的 否定한 强한 見解가 있음은 同時에 大乘的 方面이 안된다。 小乘敎徒를 非難하는 이 點은 아니라 바로 法을 說하고 無我를 說하고 苦空을 解脫한다。 大乘的인 見解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念頭로 理가 說하는 한 觀察뒤에는 恒常 現實肯定을 잊지않는 偉大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卽 一切空을 說한 뒤에는、無碍自由한 人格活動을 肯定하고、諸法無我의 道를 解하는 뒤에는 大慈悲의 意味를 肯定하고、無限한 大我를 意味하는 即 涅槃寂靜의 大德的 解脫을 말하는 即身成佛의 理想에 歸結되는 光土의 理想은、적어도 大乘佛敎의 思想을 知悉하는 理解하는 바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佛敎의 思想에는 最後에 消極的 事實이 있음은 이 方面으로 그것은 轉換해 그가 眞理에 積極的 準備가 되는 것이므로 이 方面을 表面에 내세워서 이것을 大乘佛陀의 眞意로 하고 目的은 참다운 大衆化의 實現을 까닭이다。

三、法要儀式으로서만의 形式佛敎가 아니고 生活原理로서 佛敎

우리 人類의 指導精神으로서 印度在來의 一우파니샤드一哲學을 根底로 하는 一베一다一印度敎는、生生한 生活原理를 喪失하고 婆羅門僧侶들의 要求하는 時代의 哲學、宗敎를 指導精神으로서의 切實한 問題解決을 주는 統的인 宗敎儀式에、置重하고 時代의 呼應에 絶叫하였다。 이 때 釋尊이 나타나 선 形式的 儀式을 打破하고 人類生存의 生活 原理、導精神으로서의 宗敎를 高唱하시었다。 바로 부처님이 분이시다。 그런데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民族에 따라 佛敎는 法要儀式도 變化했다。 우리 韓國의 佛敎儀式에 있어서도 複雜多岐하게 變遷해 왔다。 敎的이 아닌 요소까지 끼어서 매우 복잡化해 있음을 볼수 있다。 生活의 切實한 生活問題를 解決해주는 原理 는 生活과는 아주 동떨어진 問題와 그러한 일에 行해지는 儀式이 있는 일이 許多하게 參으며 今後[illegible]

現代에 이것이 바로 그 佛敎의 存在價値와 意義를 主張할 수 있는 根據일 것이다。 佛敎大衆化問題에 있어서 甚深한 法意를 敎會組織에 앞서 僧侶의 혹은 嚴重한 區別을 徹廢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僧侶偏重의 制度는 佛敎의 弊端으로、大衆的으로 되지 못한 것도、佛敎가 世間的인 大衆主義의 本來의 精神을 살피보면 반드시 이에 起因한다。 거기에 있는 大衆佛敎는 아니라、적어도 理想은、적어도 俗人이 中心이 되었던 것은 勝만經과 維摩經이 明示하는 心話로 한 大人을 中心으로 한 俗人中의 勝만이 精神에서 보드시 하는 것이 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敎役者로서의 僧侶가 不必要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僧侶는 別種族의 特別階級처럼 생각하는 또는 同胞主義로、同信主義로 弊를 徹廢하야 平等主義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佛敎寺刹은 從來에 와서 그 權威는 [illegible]

이것이 바로 現代에 對하여 새로운 生命을 期하는 곳에、佛敎의 새로운 活路를 찾을 것이다。 佛敎는 그 本來의 理想을 把握하여 光明을 주어 여러 面에 있어 生活에 새로운 生命을 期해서、그 理想의 實現을 全人類에 골고루 이 佛敎의 大理想을 把握하고 이에 生活에 살려면 大衆化問題는 現代生活의 精髓를 把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易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그 東縛에서 脫皮하여 勇敢하게 형식에서 벗어나서 大衆化問題는 容易하게 한 生生한 生命이 있게 하여금 生生한 現實에 因한 敎로 하여금 生生한

敎가 이 廢墟化하는 가다가는 불원간 根本敎理로서 佛敎는 本來 民衆에게 있는 文化的으로、同時에 歷史的、一般의 民衆에 있어서 結付되어있는 點이 많은 關係上 一般民衆이、佛敎에 特히 知識層에서는 佛敎를 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傾向이 있음은、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寺院을 中心으로한 率直히 말해 佛敎는 到底히 過去의 形便이다。 우리 寺刹과 傳統等을 자랑하고 있으나、改善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組織에 있어서 敎理와 法要儀式에 남았고 이미 있어서 淸新을 欠하고、形態로는、또 複雜多端한 會에 應해서、徹底를 求하는 民衆의 宗敎的要求에 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佛敎의 發揮하고、現代人의 欲求를 滿足시키는 宗敎的으로서의 우리들의 現代人으로서의 立場에서、改造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佛敎의 本質的인 것을 高調함과 同時에、非本質的인 것은 버리고、要索는 다시 時代의 欲求에 應할 수 있는 樣態로 還元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改造도 注意해야 할 것은 根本精神에서 脫線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할 것도 없다。 大乘佛敎思想을 鮮明하려면 容易한 問題가 아니건 하나、簡單히 말하면

서、그런데 어떠한 種類의 初期에 있어 佛說에 依해서 定해진 佛說에 依해서 忠實하게 規範을 지키는 面에서 너무 表面的인 自由를 잃은 形式에 사로잡혀 程度以上으로 小乘이라고 하는데 佛陀의 自由의 精神을 把握하려는 것이 大乘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小乘을 形式的 保守的 佛敎라고 할 수 있다면、大乘을 精神的 進步的 佛敎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大乘運動을 일으킨 것은 特히 여러 種類의 注目할 만한 人物이 나타났느냐。 大乘經典 중에서 俗人信者들이、活躍한 事實이 有名한 例가 있다。 維摩經의 維摩와 勝만經의 勝만이 그렇다。 勝만經의 勝만은 維摩經을 보면、잘 알 수 있다。 一Lakīrt라고 하는 大乘居士도 中心이 되어있고、勝만經은 Sri Mā 夫人을 中心해서 信心깊은 深意를 獅子호하는 佛陀의 經이요 그것에 따라서 活躍시킨 것이다。

以上으로、專門家인 僧侶도 되어、佛敎精神의 眞髓를 會得한 것으로、大乘佛敎興起에 佛敎에 밝혀진 것이 俗人이 中心이 된 것을 暗示하는 것이다。 大乘佛敎는 哲理에 있어서、小乘보다 幽玄하여 宗敎로서는 小乘이 出家主義인데 對하여、大乘은 在家主義에 通俗的 特徵으로 하여 小乘이 專門的임에 對한다。 小乘에 있어서는 極意로 하는 바、佛弟子의 最高理想을

羅漢이라 하는데 大乘에서는 目標로 하는 佛陀의 理想은 菩薩을 目標로 하여、自身은 事實이 候補者인 佛陀의 一名으로 하고 小乘이 있다、그러므로 나아가 간다。 羅漢乘(聲聞乘)이라고 小乘을 한다。 大乘은 보살乘이라 出家한 羅漢은 到達할 수 있는 비로소 坑지에 다라 本來成道以前의 佛陀에 釋迦牟尼 보살은 부처님 의 稱號이다。 아직 羅漢은 僧人으로 모두 圓頂인데 보살相은 영락을 쓴 寶冠을 보고 있으나 되어 걸고 俗士로 塔을 있음을 보면 알수 있는 理想이다。 보살이 大乘의 人間味에 通해 있는 理想으로、말할 것도 없는 것은 俗的이요、人間味가 넘치는 것이다。 畢竟、小乘의 坑界는 見解로는 안 되고 出家하지 않으면 함께 對하여、大乘은 在家하는 채로、坑界를 맛보고 그 力을 발휘할 수 있다고 立脚한 것이다。 非俗非出家主義라고 할까?

四、結論

以上에서 佛敎大衆化問題를 概括的으로 論해 보았으나 그 具體的 方案으로 自身의 資格問題、佛敎大衆化運動의 項目的으로、佛敎에는 對하는 아論하여 보면、첫째、佛敎大衆化運動의 方向을 어떠한 바를 하드라도 所期하는 向으로 다 우리의 全人格을 統一하는 바는、그것을 들어 滿足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即 情的要求의 滿足 않는 것은 아니며 智的要求도 滿足을 주고、그리고 意的要求를 統一하고、鼓舞해서 光明世界에 引導함을 理想으로 해야 할 것이다。 宗敎의 領域은 感情과 智的 關與할 批判의 獨斷에 있음으로 같은 式이어서는 안된다。 아니 다만 宗敎的 佛陀의 이 點에 있어서 그것은 질은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 事物을 不變하는 正大로 있는 法則을 發見하고 우리의 意義에 있어서 統一 하여 實現하려고 最高理想을

둘째는 實際化에 있어서 容易함은 通俗的 理想으로 한다。 卽 佛敎의 特質을 發揮해 갈 必要가 있다。 셋째、佛陀는 사람은 다 性이 있다는 見地에서、宗敎的으로 區別을 徹廢했다。 四姓階級의 印度의 開放的 精神을 一層 더 徹底시킬 必要가 있다。 國民的으로 區別이 없고、男女의 別도 特色으로 大衆化佛敎의 僧侶의 區別 같은 것은 全部撤廢하고、一切平等으로、體驗하고 平等한 味를 得하고 그리고 이것을 講說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곧 佛敎의 民衆化、大衆化가 야 할 곳까지 가는、目標가 아니면 않된다。 다섯째、佛敎는 元來 廣大無邊한 愛와 嚴肅한 道德을 가지고 出發했다。 大乘의 보살의 理想으로 하는 바는、絶對感(無像의 慈悲)와 完全한 德行에 依해、自他를 救濟하는데 있다。 大衆化運動은 이 精神을 徹底的으로 實踐해야 한다。 舊大乘에 있어서 世音보살이 三十二應身을 나투어서 衆生苦를 救濟하려고 한 것을 보면、新大衆化佛敎에 있어서는 救濟하려고 한것을 實現하여야 한다。

其他、大衆化를 目標로 하여、實現함을 如實히 理想으로 實行하도록 스스로를 보고、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資本家에、病院、學校에、勞動者로、工으로 가라、銀行에도、炭坑에도 가라、行願의 實現、保살의 道를 實現해서 그리하여 精神만이 아니라 物質的上에、그 理想을 삼고、實現함으로써、그러고 極樂의 活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外에 있으나 가추어야 할 資格이 있다。 이것이 그 主要한 運動이라고、새로운 大衆化運動이 된 것은 아니다。 기에는 通하는 것을 살고 生命이 있는 大衆化 運動이 것이라는 格的인 體驗에 다시 옮기어야 하는 것은、가 있다. 體驗을 欠하는 外觀上의 必要하다。 佛敎의 中核에 다다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아무리 그럴듯하고 儀禮에 치우친다면、그것은 宗敎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宗敎는 갖는데 있다」하는 것이기 보다 —敎界는 無感激하다。 現代의 無感覺은 「산송장」이다。 生活은 枯死하고 形式만 남은 感激없는 敎界는 逃避하는 佛敎가 아닌가、感激의 喪失이다。 信念은 없고、道心없는 곳에 宗敎는 무엇인가? 그러면 祖師의 精神을 理解하라。 現代에 살리고 佛祖의 佛敎를 現代의 佛陀라고 實踐하는 佛像 經典도、佛을 무엇으로 아는가? 念珠도 아니요、佛心이 아니다。 없는 데서 佛이 있는가? 佛心이 있는가? 이것이 問題다。 있는 그 佛心 곧 빛이 佛敎의 光明이다。 즉、佛心 그것이 마음이 빛나는 佛像을 拜하는、佛心이라는 것이다。 佛陀로 절하고、그 佛敎는 無數한 佛經을 讀하고 그 곳에 佛陀가 萬若 佛陀의 衣食을 維持하는 生計와 關係없는 것이다。 佛이라고 한다면 僧侶와 佛心 있는 곳에 그런 佛敎는 必要없다 하였으나、心造라고 하는 것이 그 所爲로 萬法이 唯心所造라면 佛敎의 一切는 마음을 떠나서는 없는 것이다。(끝)

(筆者·中央圖書館長)

溫故知新

虛無主義의 思潮를 創始

19世紀露國知識人의 포즈

「투르게네브의 「아버지와 아들」Father and sons」

「이반·세르게이빗치·트르게네브」(Ivan Sergeivtch Turgenev 1818-83)의 소說「아버지와 아들」은 一八六二年에 發表되어 當時의 「러시아」를 激動시켰다。「트르게네브」는 元來 貴族出身으로 自然을 좋아했으나、貴族의 橫暴와 農奴들의 悲慘한 生活에 同情하여 市民的인 自由思想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農奴를 放시키고、過激한 言論으로 政府를 攻擊하다가、彈壓을 받고 一五五年에는 또 「프랑스」로 亡命했다。 그는 「프랑스」의 自然主義文學과 西歐的 感覺을 옮겼다。 그는 「러시아」에 대개의 世代를 남은 世代와 젊은 世代(封建社會)와 對照的으로 五十九世紀 「러시아」 六十년대의 靑年들의 憂鬱과 虛無感의 時代相을 잘 表現한 小說은 「아버지와 아들」의 主人公 바자로프는 「러시아」의 思潮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었다。 五十년대의 代表되는 貴族들의 偏見과 沒落해가는 보수적인 바자로프는 自然科學을 공부하는 大學生이다。 그는 實驗도

「빵조각을 입에 넣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抽象論理 같은 것은 必要하지 않은 그런 것에요」라고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말한다。 哲學도 로맨티즘이요 단순한 아무소용도 없다는 것이다。「現在로서는 否定이 제일 유익하니까 우리들은 否定하는 것 무엇이나」 그의 대답이다。

그러나 그의 친구 父의 人間性을 묻는 伯父의 質問에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너히들、니힐리스트? 저래」 即虛無를 말하는 다 「아무 것도 인정 않는……」 「아니 아무 것도 尊敬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로군」 「사람이라는 뜻이 모든 것을 批評的으로 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즉 어떠한 權威앞에서도 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原理一例 지요。 그것이 周圍에 아무리 尊敬받고 있는 것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原理라도、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자로프는 또 연애에 있어서도 批判的이었다。 그는 니힐리스트의 後裔인 純朴한 소녀 농家의 親口의 이카치에게 接近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중 한 귀족 부인을 사랑하여 남편의 決鬪가 벌어지고 亡人 오진쓰바의 理智의 貴族的인 未亡人 魅力과 洗鍊된

그러나 결국 그는 세계가 아무 것도 오래 그 자기 自己世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가 방황하는 사이 세계는 뒤흔들리고 있었지만、결국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안녕히…… 요。 집에서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그것은 생각하기도 했으나 자기와는 인연 없는 것 같아요、뒤에 남는 약간은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작별의 인사였다。 그는 故鄕으로 돌아가

서도 父母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처음의 患者들을 看護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오진쓰바에게 소식을 보내고 달려온 그녀에게 「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사랑하고 있었다고 신을 …… 그녀를 前부터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意味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데 없었는가 그는 어디 가서 작자인 「투르게네브」는 이 作品의 主人公인 바자로프를 性格과는 反對되는 作者가 만난 醫師를 모델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 작자는 이러한 人物을 「非行動的」 作者는 貴族的인 美的인 理想主義에 대신하여、一人의 道主義、旣成權威를 否定하는 切迫한 情熱의 空想에 빠지지 않고、藝術的으로 行動家요、科學者인 바 平民出身의 十九世紀後半期의 「러시아」의 社會運動을 推進하는 知識階級의 典型으로 그린 것이다。

「트루게네브」의 作品에는 「루딩」「그前날밤」「처녀지」「첫사랑」「연기」等의 小說과 散文詩가 있고 「트루게네브」의 人間의 두 型 「햄릿트型과 동키호테型」을 말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有名하다。 國文版으로 나와 있다。

英語雄辯評

審査는 外人이 하도록

迫力있는 제스추어를 희망

도 울이 많은 外國人의 심사원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外國人이 英語를 學生들에게 英語로 하는 乃至 現在 英語雄辯 語學的인 批判을 해주었다면 더 좋은 批判이 될 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되나 또 外國人의 심판이었다。 그들은 外國人들의 관점에서 보는 觀點은 우리들이 보는 觀点과 차이가 나는 點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좀 크리티시즘을 期待했다。 發音도 效果的인 實感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點을 着眼하여

英語雄辯大會는 다른 大會와 달리 적어도 外國人(英美人)으로 構成된 審查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關心을 기울여 하겠다。 學生들의 英語雄辯에 있어서 一般的인 批評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있어서 聽衆들에게 세스츄어 迫力이 不足했다。

審査員의 構成에 있어서 外國人과의 數도 멤버를 法的으로 按分된 숫자가 있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雄辯하는 것에서 反問이 있었다는 點이다。 例를 들면 文句中에 言句를 反省하는 態度로 言調를 促求하는 점이 많았다。

審査員 自問自答하는 態度를 取하기가 일수였다。 言句中에 自己가 强調해야만 할 言句를 말할때에는 熱意있게 세스츄어를 使用하여 聽衆들의 關心을 集中시켜야 할 것이다。 適合한 세스츄어의 不足에서 生成된 것이 말하자면 聽衆間의 呼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말은 英語學徒의 大使館의 맥타가트氏 美 審査員인 심사관이 말한 다같이 地境에까지 英語敎育이 非實用的이며 實際的이라는 酷評을 받았다。

자 하고있는 事實로서 特히 英語雄辯에 있어서 發音과 不可缺한 要素이다。 抑揚은 發音學에 있어서 詳細한 論議와 理論이 展開되고 있겠지마는 普通 演說할 때에 좀더 精神의 集中을 維持한다면 自然히 自己가 말하는 言句에 自己의 感情을 살릴수 있다고 보며 이 感情

둘째로 發音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無心하게 發音을 發하였다는 것이다。 英語敎育이란 우리들의 古今을 通하여 解釋과 文法至上主義로 一貫하여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發音에 있어 좋은 結果를 期待치 않았지마는 그 程度가 甚하였기 때문에 나도 놀라와 同時에 좀 너무 하였다는 感이다。

비록 英語敎育에 從事하는 분들에게는 難處한 氣分을 忠告라고 하는 發音에 좀 注意 만 하였다면 좋은 結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된다。 셋째로는 雄辯中의 抑揚인데 이것은 모두 周知하는 바와 같이

圓滿히 다루는 狀態를 생각해 보겠다。 이 換言하면 自然的인 言調의 흐름이 있다고 믿는다。 말의 表現에 있어서도 表現하는 抑揚如何에 따라 相對方의 感情狀態와 解釋은 달라지므로 抑揚은 이처럼 돌는 사람으로 하여금 反應을 이르키게 하는 重要한 役割을 가진다。

이번 大會에서는 發音과 함께 演士들의 抑揚에 對한 關心이 稀薄했다는 것이 事實이다。 稿內容이 모두 大同小異한 原版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듯한 一般性을 돌는 사람으로 하여금 疲勞케 하였으며 意造成에 좀더 新鮮한 原稿로 演說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內容에 있어서 「스피치 콘테스트」가 會의 趣旨와 大的 意義를 살리려면 外部人士의 參與가 보다 必要하다 。 大會를 盛況하게 하고 많은 聽衆들의 氣分을 昂揚시키는 周圍의 分위기를 조성하는 計劃과 組織을 樹立하여야만 될 것으로 나는 본다。 一九六〇、十、二十七

宋敬俊

(筆者·文理大講師)

學科運營鼎談

國文學科篇

◇參席者

梁濂奎 (國文學科主任教授)
趙演鉉 (國文學科講師)
鄭恩培 (國文學學會長)

本社側
速記 吳學榮

專攻教授에게 講義받고 싶다

講師를 많이 招聘했으면

一、專攻學科教育問題

▲鄭…學科教授方針이라던가 운영계획等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討해서、그것이 어느정도 新學期부터는 反響이 있었으면 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 해봤읍니다。 보니까 이런게 있읍니다。 專門分野가 아닌 學科를 論義하는데、이런것은 專門的으로 研究한 분을 모셔다 教授하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梁…그건 이래요。 한 教授가 自己의 專攻科目을 一學期에 四科目만 말게되어 있어요。 가령、예를들면、專攻科目은 일학기에 二科目 二學期에 二科目으로…。

▲趙…그 얘기는 이런 것이겠지。 A라는 教授는 國文學史 專攻인데 方向이 다른 言語學概論을 강의한다는 경우ー教授의 강의 專攻學科만 돌고 실다는 이야기겠지요。

▲梁…내 예를들어 봅시다。 나는 國文學史、國文學概說、國文學연습 民謠論을 하는데 民謠論時間에 國文學史를 講義하지말라는 얘기죠?

▲鄭…그게 아니라、민요론은 면요론을 專攻한 教授에게 강의를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梁…아、그야 그래 옳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경우 講師를 많이 초빙해야 해요。 또 우리는 梁教授、金教授하기 말고 梁講師、金講師해서 강의해요。 그렇지만 現實的인 조건이 허락절 않아요。

▲鄭…그러니 學生만 골탕 먹읍니다。 이런경우도 있어요。 語文法의 知識이 빈약하니까、그냥 文學的으로 해석하는데、이것은 學問的 教授가 되지 않아요。 심하게 말하면 教授가 아니라 중계하는 아나운서에요。 자기가 原典을 研究하지 않고 다른 學者의 學門을 그대로 다이제스트式 教授들 한것은 금해야해요。 그리고 또 教授님들이 앞에서 學問的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梁 좋은 얘기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지만…사실 종치면 강의 시작하고、종이치면 나오는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이죠。 또 우리 남의 著書를 참고로 보긴 해도 그것을 그대로 강의하지는 않아요。

▲趙…근본적인 문제를 탓취한 것인데、이 점은 東大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大學의 國文科도 마찬가지로 根本的인 研究가 있어야겠어요。 國文學科는 사실 國語와 國文學이 같은 자리를 하고 있어요。 [illegible] 學問的 分野가 다르고 國語學은 별개의 분야와 國文學 分野가 되어있거던 言語學과 古典、現代文學 三者가 合해서 國文學科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分離해서 教育할려고 했었는데 그럴려면 學校의 經費가 많이 必要하지요。

國語學古典에치우쳤다

古典、現代文學時間을均等하게

二、國語학國文학의 학的 體系와 性格

▲鄭…앞서 말씀하신 것과 同質의 것입니다만 國語學과 國文學의 學的인 體系와 그 性格을 分明히 말씀해주셨으면…。

▲梁…그前에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國語學하는 사람은 國語學을 하고 國文學하는 사람은 國文學만 하기로ー

▲趙…거기에 동감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希望적인 얘기가 있어요。 國語學、國文學、現代文學의 三者가 어울려야 되겠는데、실제에 있어 東大國文學科는 現代文學分野가 없다 실이 되어 있어요。 古典에 치우쳐 있거던。 사실 古典文學을 研究하는 理由도 現代文學을 더잘 理解하려는 의도에서 出發되고 또 앞으로 우리의 文學、即 創造文學을 研究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古典이 專門이 되고있는데…사실 現代文學講座가 지금 현상은 十分의 一밖에 안되어요。

▲鄭…조선생도 말씀하셨는데、古典하는 것은 現代文學을 이해하려는 目的에 있는데 지금 보면、그것이 아니라 古典을 目的으로 하고있어요。 이것을 좀 現代文學을 理解시키는 方向으로 해주셨으면…。

▲梁…좋아요。 그렇게 是正하는 方向으로 움직여 보겠어요。 그렇지만、現代文學은 古典을 이해하는데서 더 훌륭한것이 나오지 않어요。

▲鄭…그렇죠。 그런데、學科目 時間配定에 있어서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古典專攻하는 사람과 現代文學하는 사람이 제 좋은科目을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梁…그런 輿論을 작子ー換起시켜요。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아요。

▲趙…그런건 책임자인 梁教授가 하셔야지。 (웃음)

▲梁…그런데 제약이 많거던요。 지금 하고있는 것은 일년에 專攻科目三科目을 하고 있는데 三中擇一해도 좋고 셋을 다 들어도 좋아요。

▲鄭ー專攻이 아닌 다른 古典에 억매이지 않고 공부할수 있게 그리고 古典學、國語學、現代文學을 균등하게 時間을 짜스면 하는데 할수 있을가요?

▲梁ー글쎄… 國文學보다 文學을 하려면 英文科나 佛文科를 擇하는 편이 좋죠。

▲趙ー그편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現實的 利害가 그렇지 않거던。 가령 나는 文學者가 될려면 現代文學을 해야겠는데 國文學科에서는 너무 國語學이나 國文學古典에 치우치니 本格的인 文學을 할수없다。 이런데서 나온 學生要求이겠죠。 分明히 學的性格을 세우고 그것을 論義해야 하는데、그럴려면 學校의 經費가 많이 必要하죠。

▲梁…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어려운 문제에요。 다른 大學에서도 어려워요。

學問交流보다就職付託

學生들은質問을活潑하게

三、學生과 教授와의 關係

▲鄭…그럼 다음엔 이런것 좀 말씀해주실까요。 學生과 教授가 멀리 떨어진 隔隔感이 있는데、앞으로는 學會室을 研究室로 만들어 學生과 教授가 좀 가까운 거리에서 研究할수 있는 雰圍氣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떨가요? 趙先生님 말씀좀…。

▲趙…教授와 學生과의 交流는 學問의 交流에서 오는 것인데 경우를 보면 學問的인 것보다 就職부탁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現實的인 것이죠。 산이 앞서는 것이죠。 앞으로는 現實問題보다 學問問題에서 交流가 있었으면 해요。

▲鄭…趙先生님이 취직을 잘 시켜 주시는 모양이죠? (웃음)

▲趙…그렇지도 않은데…… (웃음)

▲梁…그런데 사실 취직을 시켜야 겠어요。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鄭…研究室을 어떻게 이용할것인가ー양선생님 말씀해주세요。

▲梁…잘모르지만 研究室에는 生活일습을 提供해줄테니 研究에만 專念하라고 해요。 그런데 圖書가 있어야지ー

▲趙…圖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基本的인 問題는 教授라고 봐요。 學生의 研究熱을 받아주고 끌어줄 教授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研究室이 만들어지는 同時에 專門教授가 있어서 친절히 指導하는 것이 問題죠。

▲梁…좋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教授님을 모셔다가 좋은 강의도 받고…

▲鄭…學科目을 강의하다 끝내지 못하면 序論만 돌다 말거던요。 그러니 어떻게 따루補講을 해서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梁…그건 時間이 짧아서 그래요。 한學期에 난科目을 끝내려면、아무래도 어려워。 뭐 教授의 著書를 사읽고 모르면 따로 問議하지。

▲趙…그렇게 할수밖에 없어요。 教授時間이 짧으니까、問題에 대해서 핵심을 어떠한 方向으로 研究할수 있는가、그 方法을 제시해주면 되겠죠。

▲鄭…학생들의 學習態度에 대해서 좀ー

▲梁ー國文學科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講義室에 들어가면 담배煙氣가 자욱한것 참 나빠요。 또 講義도중 선생앞에서 쑥나가는것 이런것 좀 없었으면 참 좋을거에요。

▲趙ー受講態度를 말하기 前에 교수方法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어요。 教授方法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一) 하나는 講義하는 노트를 가지고 하는것 (二) 또 하나는 著書를 가지고 강의하는것 (三) 셋째는 高等學校式으로 하는 경우、(一)의 경우는 너무 著書講讀에 억매이지 말고 說明과 理解를 돕고、(二)의 경우는 安易하게 찬성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 (一)의 方法을 취하는데ー학생들이 質問하는 것을 活潑히 해서 강의가 活潑하게 進行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質問이 없어요。 東大는 質問을 活潑히 했으면 좋겠어요。

學會行事는研究發表中心으로

文學써클活動은勸奬하고싶다

四、學會活動의 이모저모

▲鄭…여태까지 學會活動은 春秋로 文學作品發表會、백일장、講演會를 했는데 學科目과 그다지 密接한 關係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學會를 運營하고 活動케 했으면 좋을가요。

▲趙…學會活動은 研究發表中心으로 하는게 좋아요。

▲梁…月例發表會를 했으면 어떨가。 한사람씩。

▲趙…그건 學生이 中心이 돼서 해요。

▲梁…그럼、금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四・一九가 있었고…앞으로는 할것입니다。

▲鄭…學報發刊도 있는데、이건 논문집으로 하나、그렇지 않으면 創作文學도 포함하는가、어떻게 하는게 좋겠을까。

▲梁…그건 分離시켰으면ー

▲鄭…그러면 創作文學하는 사람이 타격이 많아요。

▲梁…創作文學은 다른 發表誌를 내도록 하지。

▲鄭…써클 활동에 對해서도 말씀을ー

▲梁…써클이 많죠? 龍雲文學會、東岳會、水曜文友、또 뭐 생긴다더군。 이런 써클운동이 많은데 이 現狀은 어떻습니까?

▲趙…좋죠。 그런데 學生이 이것을 길러주어야 겠어요。 세가지 不足인데 外國語、論理的 思考方式、해석력이 세가지 貧困은 文學界 全體의 現狀이지만 이 세가지는 補助學問으로 가져야하고 또 같은 關心을 가져야 해요。

▲梁 비교문학 할때 느끼는 곤난이 그것이죠。 그렇지만 直接느끼는 貧困은 漢文실력의 貧困이에요。 國文學을 할려면 漢文이 있어야요。 三國史記 三國유사는 說話文學의 根源인데、原典을 모르고 되겠어요。 그리고 哲學이 不足해요。

▲鄭…우리 國文科에는 벌써 在學生 時節에 文壇活動을 하는 作家、詩人이 많은데 學校에서 어떤 特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學校에서는 다 하고있어요。 가령 學費免除라던가 장학금을 준다던가…。

▲梁…좋죠。 난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있지 할런데… 좀 어떻게 해줘야

▲趙…傳統을 살려서 좋은 才質 人材는 길러야 해요。 文學的 분위기도 중요하고ー

▲鄭…그래서 이런것도 생각해 봤어요。 塔을 세워놓고 既成作家 詩人이 되면 그 이름을 세겨놓고 보게 했으면 좋을겁니다。

▲梁…그렇지。 宣傳을 많이해야 또 좋은학생이 많이 入學하지。 學生이 많아야 나갈은사람 선생 노릇도하고…(웃음)

▲趙…다른大學 같으면 宣傳을 광장히 할텐데 東大는 옛날부터 그런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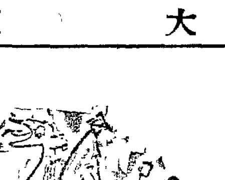
▲梁…名單을 作成해서 文學의 밤같은때 읽어요。 우리 大學에선 이런 훌륭한 文人이 많이 나왔다ー떠드는거에요。

▲鄭ー그 方法도 좋습니다。 그럼 바쁘신데 時間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學科教育운영方針을 대강 診斷해본셈이 되겠읍니다。 이것이 新學期에는 어느정도로 反響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

撫菊語

洪永義



서리 내린 뜰에 나서면서 몇 그루 菊花와 마주 선다。

「나인데 무어라 할말은 없느뇨?」

「…………」

싸늘한 바람이 내 옷깃을 스치자 菊花 꽃송이들이 살래 살래 고개를 흔든다。

아직도 아침 공기는 착 갈아앉은채 우수수 낙엽을 굴리는 西風이 大地의 脈박을 흔들뿐 文明의 騷音 하나 들리지 않는다。

× ×

무릇 꽃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빛갈이 희고 붉고 누르고 보는 눈을 끄으는 反面에 상긋한 그 내음새가 코를 잡아다니기 때문이다。

菊花도 꽃이기에 이렇듯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리라。 別난 理由를 붙여 菊花가 좋다는 說明이 무슨 必要냐。

行・住・坐・臥 二六時中 언제라도 이렇게 菊花와 마주서도 싫은 생각이 없이 내 마음을 부풀어 매는데 나도 그 까닭을 모른다。

술 냄새만 맡고도 술에 醉하는 人間이 있는 까닭에 나도 이렇듯 菊花 내음새에 사로잡힌 祭物인지 모른다。

× ×

遊戲는 勞動보다 오래고 藝術은 實用보다 오래다。

정녕 노래가 말보담 먼저마구 마지운다면 菊花꽃은 소담스럽게도 나보담 먼저있고 이렇듯 나를 어루만지는 君子의 姿勢를 지니고있나부다。

勞動으로 그날그날을 糊口하고 實用으로 현실과 妥合하는 오늘의 社會가 아니냐。

피 비린내가 몽실 거리는 生活苦때문에 愛慾마저 渴藤이 생기고 肉親의 情義나 이웃의 友誼를 찾는 秩序가 서지않는다고 遊戲를 버리고 끝내 藝術이란 꿈마저 불살라 버릴순 없다。

× ×

菊花는 제멋대로 피어있고 人間도 제멋대로 사는 世上이니까 藝術이란 하나의 玩具 모양 아무렇게도 窘迫한 人間살이와 아무런 關係가 없다。 그대로 지내왔고 또 萬年이 千年을 이대로 지날것인가。

東籬에 採菊하던 東坡는 갔어도 東坡가 어루만지던 菊花와 술은 더욱 香기롭기만 한데…

× × ×

「金剛山五臺山에 凡嵐이 물들면
머루랑 다래랑 꽃도 아지도 살지고
물레방아 연자방아 人情이 감돌아
菊花酒 익는 마을에 낮닭이 운다」

×

호랑이가 울고 간 山水화 처럼 山곱고 물맑아 八邑이 으붓한 關東의 그 어느 두메굳 그리는 나의 敍情曲 一部이다。

일러 關東別曲의 新調라 내고장의 벗을 그리는 마음 菊花가 먼저 알고있을거다。

아니다。

菊花는 예로부터 서릿발에 거센 呼吸을 하기에 모든 寄花妖草가 무시들어도 그 節介를 자랑한다고 모

詩人들은 못내아쉬워 [illegible] 다。

士의 氣節을 比喩해 菊花를 四君子中 하나로 稱譽했다。

士의 氣節은 그 한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安危는 물론 天下를 다스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때문이다。

士의 氣節이 있음은 [illegible] 같고 집의 棟樑과 같아서 나라의 序가 바로선다고 한다。

그러나 배에 [illegible] 없어지고 집에 棟樑이 없으면 허지는것은 旣定事實 나라의 [illegible] 가 없으면 그 나라의 [illegible] 어볼必要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所謂 나라를 다스린다는 政治人들은 어떤가

所謂 教壇에서 [illegible] 자들은 어떠며 젊은사람들에게 [illegible] 가 없는가?……。

菊花앞에 서기 얼굴이 붉어진다。

×

菊花는 말이 없다

말이 없으니 내 마음이 한결 답답하다。

말이 없기 때문에 나는 꽃에 홀리는 病이 들었다。

어루만지고 싶고 어루만지다 한가지 꺾고 싶다。

눈은 빛갈에 醉하고 코는 香氣에 醉하고 마음은 神秘로운 思索에 醉해 버린다。

여기 내가 菊花를 사랑하는 情熱이 움터 오른다。

×

情熱은 愛情을 虛費한다。

愛情이 情熱을 濫用한 까닭이다。

愛情이는 生物的 事實이 가진 不可抗力의 大自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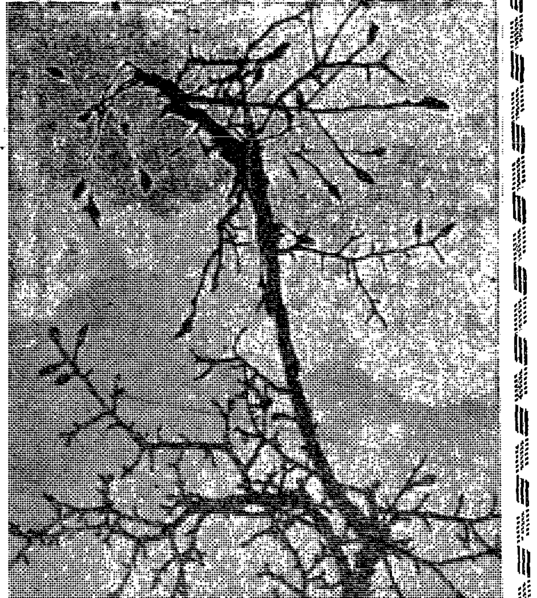
愛情은 人事萬般을 左右하는 最高의 動力이기 때문에 모든 文化의 母요 文明의 奇蹟이 아닌가。

愛情이 한개의 藝術的 作品이라면 이 愛情 때문에 消耗되는 情熱! 그는 가장 意義가 크다。

×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의 慾求이다。

各自 그 무슨 希求와 憧憬의 搖籃을 펼치고 있다。



가장 큰 慾求는 創造慾이다。

무엇보담도 自我의 創造慾이다。

내란 存在를 永久 恒存키 爲하여 내란 生命을 내가 創造함이니 내가 살았다는 [illegible] 記錄을 世上에 남겨 놓으려는 野慾 바로 그것이다。

곧 愛情은 進化의 理法이요 生 全體이기 때문이다。

×

우리 人間의 肉體란 怪物은 한 [illegible] 複數體이다。 한개의 意義를 가진 理性이 한개의 戰爭이면서 群著이면서 한개의 和요 한개의 牧羊者이다。

그러기 때문에 人間이 사는 世界는 東西洋을 莫論하고 古今을 通해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오손도손 달래기도 하면서 生存競爭의 歷史를 이어 오지 않았느냐。

菊花꽃을 노래하기 前에 菊花를 잊어버리는 마음 超越하는 心境이 이것이 必要하다。

소(牛)를 찾는 尋牛人이 되어야 하고 소를 찾아 타고 소도 잃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소도 잃고 피리를 불며 垂手入廛해야 한다。

神의 靈明不昧하고 玄玄妙妙한 精神의 作用… 精神이란 變化無窮하고 調化莫測이다。

처음에는 强健하여 負擔을 自信하는 精神은 能力을 자랑하여 무거운 짐을 지기를 좋아 [illegible] 넓은 沙漠으로 [illegible] 自由를 찾으려고 獅子가 된다。 넓은 沙漠의 主人이 된 獅子는 새로운 價値를 創造한다。

스스로 自由를 否定한 創造하는 同時에 義務를 否定한다。

[illegible] 乳兒는 [illegible] 결국은 이렇듯 개의 精神의 活動은 三段으로 나누어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虛無에 가까운 一種의 歸依處와 世代가 있다。 [illegible] 安息處가 곧 小兒이다。

가장 强한 思想은 가장 弱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 人生에 必要한 것이다。

[illegible] 天眞爛漫이며 健忘이며 새로운 것이 發端이며 遊戲이며 自轉의 車輪이며 最初의 運動이며 神聖의 肯定이다。 이 모든 것이 自然이면서도 또한 새로운 出發点이다。

스스로 小兒에 돌아가서 眞實한 人間이 展開된다는 것이니 니ー체의 思想이다。

×

高尙한 人間일수록 恐怖를 모른다。 잘 不幸을 買受하는 곳에 通常人과 差別된다。(마음이 좁고 膽이 작은 사람은 큰 任務를 말으면 不安해서 늙어지는 것 같이) 恐怖와 不幸을 逃避하지 않고 幸福과 安逸을 또한 求하지 않아야 한다。

生의 本能! 보다 굳세고 높고 보다 깨끗한 生의 本能! 보다 恐怖를 超越하고 勇氣를 通하여서 生 그가운데에서 喜悅과 誇[illegible]을 가지고 있는 것이 人間이래야 한다。

삶은 힘! 生命은 熱!

肉體的인 힘위에서 精神的인 것을 延張시키는 人間建設的인 우리나라가 아닌가。

×

쉬운 瓦全보다 하나의 玉으로 부서지는 情熱과 氣質 氣慨의 「變化氣質」 「湖明心術」 이것은 오는날 젊은 世代가 지닐 座右銘이다。

[illegible]

여름은 얼마나 길었더냐 얼마나 지루하더냐。 여기 文學과 哲學의 分岐點 위에 서서 菊花를 어루만지는 나를 보고 菊花를 잊으려는 나를 본다。

어쩌면 그 어느 分土 위에서도 菊色酒 익는 마을에 낮닭은 울고 있으리라…… (筆者・隨筆家 卒業生)

東亞를 지키는 사람

徐廷夫氏

世苦에 시달린 주름을 미間에 모아놓고 앉아서 文書만 뒤적이는 徐廷夫庶務主任은 今年에 四六歲、이미 不惑을 넘어서인지 언제나 조용하고 [illegible] 感情에 動하지 않는 것이 特徵이다。

▲六・二五前해에 學校에 들어와 庶務를 말아 보다가 動亂으로 各地 各藥 [illegible]

八七年에 再任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本籍은 [illegible] 어릴적에는 江原道로、少年을 넘어 무렵에는 서울로 옮겨 살아 慶尙道 말씨와 態度는 찾아 볼수 없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亂하지 않게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스스로 般若經이라 이름한다고 한다。 [illegible] 살림꾼의 실手없는 印象。 얌전한 조용히 웃으면서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힘 자라는 대로는 해 드리겠어오」의 색씨 갈은 대답이다。

[illegible]

▲庶務課는 學校의 心臟部이다。 모든 學校의 血脈을 調和하고 部分的 活動을 均衡을 도모하고 各部처에서 무엇이 무엇이 모자라 하는데에 [illegible] 소리를 받아 넘기는 徐廷夫主任의 마음의 키는 (天)보다 높은지도 모른다。

詩作노오트 (下)

金尙憶

여기에서 나의 詩形象은 오직 앙가쥬망아니면 꼬레스뽕당뿐이였다。 그때 나에게 맞서오는 어떠면 絶望的인 것이나 壓倒的인 것을 精神化함으로써 內的對決로 나가려하였던 것이 다음 四節「그런 순식간의 하늘을 위하여 그는 노래를 갖지 않았거나 [illegible] 것들과의 화려한 [illegible] 우뚝 그에게 [illegible] 「잔」이였는지도 모른다。 여기서의 碑는 死者에 대한 追念的 標識가 아니라 [illegible] 永遠을 [illegible] 人間의 [illegible] 運命的 象徵이었다。

[illegible]

分히 自覺的인 것으로 되었으리라 [illegible]

[illegible] 戰爭과 自我表現 [illegible] 詩는 本源的인 것과 西歐的인 方法的인 것과 東洋的인 精神的인 [illegible] (筆者・[illegible] 卒業 詩人)

Window

힘든人生設計圖

時間을 無爲虛送한것을 自責 나날에 誠實하고 싶다

英國의 文豪 써머셋・모음의 老後力作 「The Summing Up」 一五章 冒頭에 이런 귀절이 있다。 「꼭한번 밖에 없는 人生이라… 生活設計圖라도 作成해서」 云云하는 周知하는 일이어서도 傾聽의 價値있는 말인줄 안다。 두번다시 없을 所重한 存命期間이라 最高度로 利用해서 最大限의 實效를 살자는 말인 성싶다。 그러고 보면、價値追求의 過程ー評價의 基準에는 多少의 差異는 있으라도ー바로 그것만이 「삶」의 참된 姿勢가 아닐른지 모르겠다。 現在라고 하는 永遠으로 通하게 되는 이 嚴肅한 瞬間、自己에게 보람있고 忠實하게 對하는 곳에서만이 우리는 삶의 眞價를 찾아 볼수 있을까。

[illegible] 이제 가까운지라、「철」도 제대로 나 있어야 할테고 더욱이 人生의 圓熟期(或者는 三五・四五歲라고한다)에 접어든 이 高貴한 時間을 無爲虛送만 하고 있다는 自責을 冒免할 길이 없이 憤痛스럽지만 하다 하다 못해 自己에게만은 誠實하고 속임수가 없어야겠다고、몸부림치며 모진 마음으로 自身을 채찍질도 해본다。 半步之嘆은 없더라도 제길을 開拓해 나가겠노라 그래도 하루에 몇장의 책을 읽고、出講을 타서 오래전에 말아 둔 번譯物도 一日割當制로 原稿紙라도 몇장에 꾸겠다는 嘉賞스러운(?) 計劃도 龍頭蛇尾로 되고 만 것이 이젠 올며 으니、이젠 자력으로 出版社의 督促이 있기前에 精神바짝 차려서 보다。 急해서야 버릇이다。 고약한 철이 덜 났나보다。 健康에 對해서는 小兒病患者가 됐는지도

成해보겠다고 몇年前부터 始作한 금붕어 趣미도 이젠 索人의 境地를 넘어서서 매니아(Mania)에 近接한 感이 不少하다。 [illegible] 化는 勿論 各者의 습벽까지도 참작케 됐으니 말이다。 淸明한 가을날씨에 一時라도 頻惱에서 벗어나 嚴選에 選을 거듭한 秀麗한 秘藏의 몇 분어를 들보아주는 그 瞬間만은 現實에서 離脫한 雜念 마도 錯할수 있는것만 갈아 좋다。

어떤 神經衰弱患者는 遊泳하는 금붕어를 [illegible] 川載 [illegible] 連想하게 되어 [illegible] 宿患을 退치하지 않는가。 執着과 妄念에서 오는 自虐行爲만은 삼가 불일이다。

平凡한 毎日이 건만 그래도 나만엔 다시없는 貴重한 나날이다。 언제나 모두가 各自의 分野에서 生業에 安心立命해서 安適 進沒頭할수 있는 날이 오게 될런지 筆者의 헛된 所願이 안되기를 빌따름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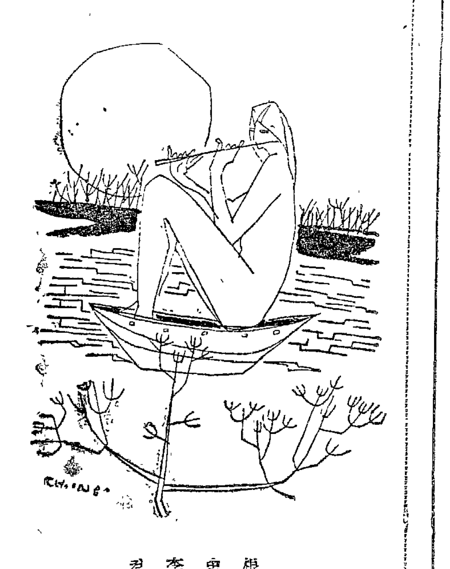
朴珍錫 (筆者文理大副教授)

冬服・코트・오바地 多量入荷
평양라사
東大教授學生께特別奉仕합니다
鍾路三街에서二街行二百步

時調文學에 對한 片攷

民族文學의 位置에서

國四 **權 泰 鎬**


컷 李忠根

時調는 半萬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唯一한 定型詩다. 우리民族이 오랜 國際風[illegible]에서도 아담한 文化를 함께 가꾸어 지니온 時調가 우리 國文史上에 언제 出現하였는가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illegible] 漠然하여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時調는 大體로 어느 때부터 形成 發達하였는가를 살펴보자면 李朝는 勿論이요 高麗末年에는 그 作品이 儼然히 存在하여 있으니 高麗末에 時調가 있었다는 것은 疑心없고 [illegible] 오늘날 時調集인 靑丘永言이라든지 歌曲源流의 文獻에서 보면 高句麗 百濟人의 時調가 있으니 그때에도 時調가 있었든가 하는 [illegible]. 그러나 이 高句麗라든지 百濟人의 時調는 後人의 擬作이라는 것이 學界의 定評이고 筆者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問題는 單只 高麗一代에 時調라 할 만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데 있다. 高麗一代의 時調라 할 만한 것은 오늘날 文獻에 [illegible] 認證된 原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傳해오는 것은 時調集에서 그 때까지 傳하여 오던 것을 通한 것이니까 그 活字化하였던 것이 그 內容 形式 乃至 그 角度에까지도 疑心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多幸히 麗末의 作品中에는 「母心歌」의 漢譯 「何如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形式이들을 比較할 때 그 疑心을 품을 것은 內容에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差異가 큰 것은 [illegible]. 우리들이 오늘날 麗末의 時調를 [illegible] 所有하고 있다는 것과 別差가 없다고 推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定型詩인 時調가

아무런 歷史的 과정을 거치지 않고 麗末에 와서 突發的으로 發生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時調가 定型詩인 以上 定型詩로 되기까지에는 적어도 그에 앞서 歷史的 胎動期라고 할까 과정을 지나 왔으리라고 믿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時調는 그리 오랜 時代에 成立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여 後代에 突然히 나타난 類型의 成立은 [illegible] 그 形式의 價値를 認證하였다는 그 形式의 存在는 問題이고 그 以前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民謠에서나 또는 民謠에서 即俗謠에서 다시 後世의 類型이 될지도 모르고서 그냥 無意識的으로 써오다가 形式美가 차차 時調로 認證되게 될 때에 비로소 獨立한 時調가 成立하지 않았는가 한다. 時調라는 成語는 光洙의 「關西樂府」의 節에 「一般時調非長短」이라 하였고 또 李學奎文集에 「時調亦名時節歌」라 한 記註가 있음을 보아 時調의 意義는 舊調가 아니고 時體로 된 調子라 함을 指摘한 바 그 本意가 新調란 語句와도 相通함을 볼 수 있다. 위의 時調의 意義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時調는 노래로 부르던 辭說과 그 노래의 曲調를 合稱한 것이다. 이 時調가 麗代를 거쳐 訓民正音의 頒布와 아울러 漸次發展의 度를 加하여 그 生命과 分布에 있어서 斷然 李朝文學界에 君臨하였다. 그러나 時調가 李朝에 들어와서 그 價値를 發揮한 것은 國初가 아니었다. 建國創業의 當時를 하여 建國創業을 頌詠하였지만 모조리 文臣들이 읊은 것이 別로 時調로서 [illegible] 없었고 吉再 元天錫 孟思誠 趙浚 李之蘭 鄭道傳 成石璘 李稷 卞季良 金宗瑞 黃喜 成三問 朴彭年 柳誠源 兪應孚 河緯地 王邦衍 等

의 作者의 이름이 헤아릴 만큼 밖에 되지 못하며 그들의 作品 또한 少數에 지나지 못하였다. 李調初期의 時調를 대들을 이어 주었을 따름이고 麗朝의 遺臣들의 懷古歌가 大多數를 점했다. 이 時調의 作者로는 위는 帝王으로부터 아래로는 賤妓에 이르기까지 學者 文士 英雄 烈士 忠臣 男女老少 모두가 時調를 짓고 불렀으니 [illegible] 어느 한 階級의 閑暇한 文學이 아니고 民族全體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 하겠다. 時調가 特히 宣祖 二十五年(壬辰) 仁祖 때에 일어난 丙子胡亂과 倭亂을 만났다. [illegible] 丙子戰亂 壬辰倭亂 때에 벌써 財産 生命 其他 許多의 犧牲을 입었고 民心은 極度로 弊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丙子胡亂이 닥쳐오니 이제는 最極度의 절망 恐惶 그것이었던 [illegible]

다. 그러자니 前代의 悠長한 生活은 만판으로 점점 燥急하게 되었다. 이 生活과는 生活과 반대의 生活의 [illegible] 悠長한 長歌보다 短歌를 要求하게 되었다. 즉 長歌와 表現 悠不急한 [illegible] 感情을 表現할 것이다. 그러므로 以後 [illegible] 倭亂에 이르는 時調文學의 [illegible] 發見된 것은 아니고 [illegible] 「少年」「大韓留學生會報」「靑春」 等雜誌에 벌써 六堂 崔南善氏의 創作이 發表되었고 또 「歌曲選」이 同氏로부터 時調集이 一般에게 널리 紹介되어 [illegible] 新文學運動과 그

史를 같이하고 있다. 時調는 國文學史上에 唯一한 定型詩요 우리民族의 詩歌다. 또한 時調는 오랜 生命을 維持하여 온 形式美는 우리 民族의 生活과 律動과 잘 調和되고 또한 合致되는 點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事實 鄕歌는 新羅의 詩歌요 長歌와 景幾體歌는 高麗의 詩歌다. 時調는 高麗中期에 成立되어 李朝를 거쳐 오늘날에 [illegible] 民族의 衰退함이 없이 生活文學으로 [illegible] 時調의 價値發揮가 아니라 [illegible] 相通 [illegible] 民族文學의 危機를 克服하는 雙方의 [illegible] 時調는 [illegible] 感情의 調和를 [illegible] 作者는 各階級 [illegible] 網羅하여 [illegible] 時調를 通해서 對立된 感情이 [illegible]

感情이 相通되었던 時代에 있어서 時調는 名實 그대로 民族文學이 되었다.

〈參考書籍〉

趙潤濟著 韓國詩歌의 硏究

趙潤濟著 韓國詩歌史綱

趙潤濟著 國文學槪說

李秉岐 白鐵 共著 國文學全史

金思燁著 國文學史

梁柱東著 韓國文學十講

金根洙著 時調硏究

그늘진 溪谷의 편지

國三 李 圭 男

여기 동부 산악전대에 계절을 앞세운 바람이 해일처럼 밀려와 산봉을 부딪고는 쏴ㅡ쏴ㅡ 좌우 숲으로 비껴 달아난다. 소학교 공책장만한 마분지 오매의 편지장이 변중사의 손끝에 가늘게 전율하고 있다. 앞뒤 박아 쓴 새까만 지면을 사뭇 사전을 보며 읽어내듯 변중사는 눈이 들려 갔다. 철이 든 이후로 두 번밖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변중사다. 그 장대한 체구와 억세운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졌다. 「병신같이 죽다니」 그의 입에선 아마 이런 말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편지 마지막장을 읽

대목이다. 휴지처럼 스스럼없는 편지장 반면이 붉은 잉크를 엎질러 놓은 것처럼 피에 흠벅 배어 있었다. 다 읽고 나서 잠시 묵념하듯 모자를 벗어 변중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이다」 중얼거리며 좌우를 두리번 보았다. 나즉이 두 동료도 울고 있었다. 소리없이 그것은 능선을 갓올라선 아침 햇볕속에 유별히 뚜렷하게 빛났다. 이때 극도로 피로해 보이는 두 병사가 [illegible] 들것을 들고 올라왔다. 얼굴 반쪽이 달아난 검붉은 시체의 면상 우에서 변중사의 시력은 자꾸 흐려져 갔다.

[illegible] 변중사는 그것을 느끼면서 [illegible] 최하사의 시체 웃주머니 속에 피묻은 편지를 정중히 접어서 넣고 있었다. 인영이 멀리 이미 숲이 어울어진 비탈길을 들것이 앞장서 갔다. 그 뒤를 따르는 변중사의 다리는 전에 없이 몹시 휘청거렸다. 그의 눈앞에 활짝 핀 영미의 얼굴과 창백한 해골 같은 얼굴이 자꾸 엇갈려 명멸되어 갔다. 영미가 변중사에게 있어서 적어도 아내라는 것은 물론 농담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변중사는 영미라는 이름이 영 싫지 않았다. [illegible]

[illegible] 변중사는 가끔 사진을 보곤 [illegible] 영미의 얼굴은 어머니의 해골같이 뼈대만 [illegible] 이때는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illegible] 운명이 [illegible]

[illegible]

가을風物

비가 나리면 그런 밤이면 잠이 오는 잠은 안 오고 [illegible]

[illegible]

隨筆

[illegible]

新映畫

◇皮相的表現의 文藝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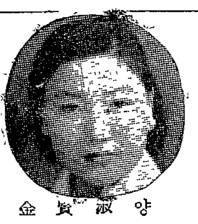
과 부

[illegible]

[illegible]

森羅萬象

金賢淑


金賢淑 양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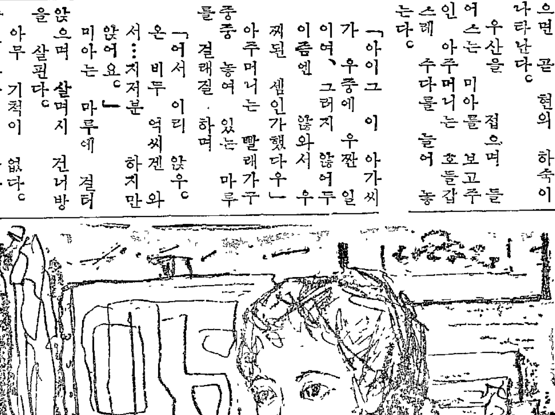
캠파쓰·스냅

[illegible]

〈創作〉 어느 畫像 (2)

이오현 作

김상수 畫



[illegible]

十一月二十三日

[illegible]

現 代 文 學　現 代 評 論